□록번호 : 경기마00107 | 등록일 : 2006년 8월 7일
행 일 : 2011. 4. 1 | 간별 : 격월간 | 발행인 : 박공영
집 인 : 박공영 | 발행처 : 우리꽃
행 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나주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TEL_031)634-7990 FAX_031)634-7991
행업소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
TEL_031)712-7001, 7119 FAX_031)712-7991

우리네

3 4 격월간

경기간행물 등록 26호 Vol.48

우리꽃 소식지는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배포합니다. 이 내용 사진자료는 무단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www.uriseed.com

CONTENTS

티컬쳐 ① ····· 1
장가이드 ····· 2 | 3
종갤러리 ····· 4 | 5
리더스초이스 ····· 6
우리꽃명품-2 ····· 7
마시리즈-1 ····· 8 | 11

포토스토리 ····· 12
우리꽃과사람들 ····· 13

월드리포트 ····· 14
광고 ····· 15

우리꽃따라잡기 ····· 16

나티컬쳐, 그 문화로의 제언 ①

텃밭에 문화를 입혀라!

요즘 도시의 텃밭 가꾸기는 거의 열풍에 가깝다. 참 좋은 일이다. 베란다에서, 옥상에서, 화분에 재배하건 상자에 재배하건 우리의 농업이 도시로 오고 있다고들 난리다. 그래서 도시농부, 주말농장, 옥상정원, 채소밭으로 불려 진다.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비슷하다. 진정한 농업은 아니지만 농업체험과 이를 통한 자연과 소통하고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행동방식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텃밭이란 집터에 딸려있거나 주변에 딸린 작은 농지, 밭을 의미하고 대체로 3평에서 100평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시골 텃밭이란 주로 생산의 개념보다는 쉽게 구하고 연제든지 뽑아 이용 할 수 있다는 간단함의 요소가 더 크다. 바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점심때 뭐 해먹을까? 하고 고민할 것 없이 텃밭의 오이와 실파 몇 개를 뽑고 풋고추 여럿만 따서 오이냉국과 함께 된장 상추쌈, 풋고추로 점심을 때우는 게 우리의 시골의 텃밭 모양이다. 우리 시골의 텃밭은 유사 이래 농경을 시작하면서 우리와 같이 했을 오래된 문화적 전통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좋은 텃밭문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도시로 와서 그 문화적 가치를 생성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텃밭은 생산의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의 텃밭, 주말농장의 열풍은 생산의 개념보다는 새로운 문화코드가 결합되어야 한다. 많은 지자체나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이 새로운 도시의 문화현명이 제대로 정착하고 도시와 결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시농업에서, 현재의 주말농장에서, 현재의 옥상텃밭에서 우리만의 문화가 입혀져야 한다.

우리는 독일의 크라인가르텐이나 영국의 얼롯트먼트, 일본의 시민농원 등 우리의 텃밭과 비슷하지만 이미 그들은 나름의 도시와 결합된 생활친화형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도시화의 물결이 인구의 과밀화는 물론 아파트화 하면서 주변에 텃밭을 가꿀 수가 없게 된 원인도 있지만 문화로 인식되기에는 아직 초보적인 현상이 아닐까 한다. 우리의 도시 1세대는 대부분 농촌 출신이었고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의 도시 2세대는 아파트와 농촌기반세대이다. 그리고 지금 도시 3세대는 전형적인 도시기반 세대로 자연의 선물을 생산하고 즐길 줄을 모른다. 하지만 항상 동경하고 그리워하며 여유를 즐길 준비가 되었다. 물론 앞으로는 개인주택의 세대로 변화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텃밭에 문화를 입힐 수 있을까?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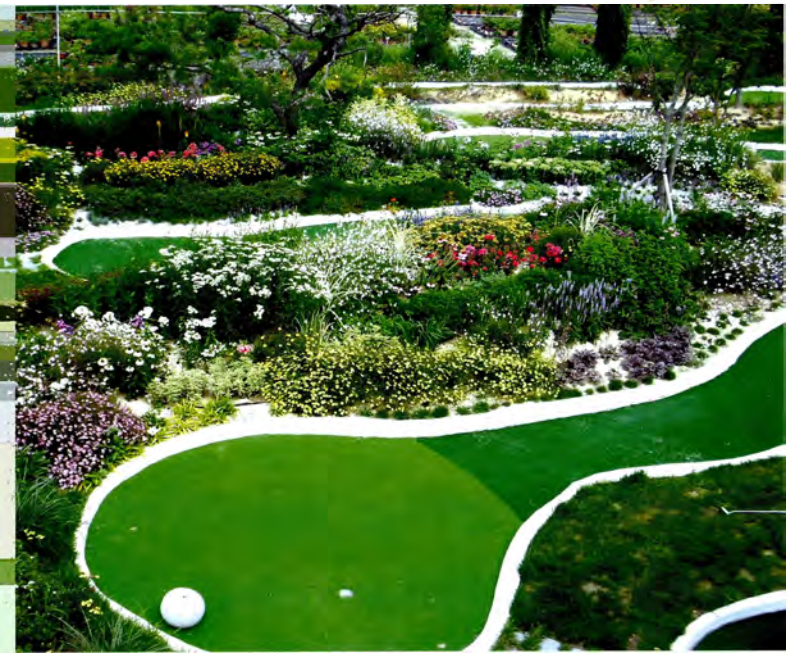
다음페이지에 계속

기존에 실렸던 '현장리포트' 코너를 좀 더 강화하여 실제 현장 조경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다양한 조경기법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했다.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꽃이 어우러지는 경관과 놀이의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

미니골프장



미니골프장 이라는 타이틀만 보면 우리 꽃이 시공하는 테마와 잘 연상이 되지 않는다. 간혹 미니골프장이라고 시공된 곳을 보면 대부분이 평지에 벽돌이나 경계석의 자재로 벽을 만들고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인조잔디를 깐다. 그리고 주로 퍼팅을 위주로한 플레이 형식을 갖는다. 하지만 우리꽃에서 만드는 미니 골프장은 꽃과 돌 그리고 물이 있다. ARI가든, 혼성·혼합식재, E&P(생태연못), 그라스원 등의 테마식재를 모두 갖춘 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취향에 맞게 수형이 좋은 교목도 들어 갈 수 있으며 정원과 공원의 개념 안에서 미니 골프장을 연출해 냈다. 퍼팅플레이 뿐만 아니라 코스를 따라 산책도 할 수 있으며 작업을 관찰하고 학습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다.

공원에 설치 되었을 때에는 지역 주민이 즐길 수 있게 기본개념의 미니 골프장과 E&P(생태연못)이나 식물 관찰원 등의 자연 학습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공간으로써는 정원을 수변공간과 각종 테마의 공간을 구분하고 또 이어주는 산책로의 역할까지 수행한다.

그러면 우리꽃이 추천하는 미니 골프장의 세부 구성 요소를 확인 해보자. 우선 혼성·혼합 식재를 기본적으로 적용하였는데

1면에서 계속

하나의 물과 형식이 필요하고 문화코드가 스스로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한다. 근교의 주말농장이 되었든, 옥상의 옥상정원이 되었든, 베란다의 상자재배가 되었든 주어진 환경에서 생산, 휴식 그리고 즐김의 3요소가 녹아드는 의미의 현실적 정립이 필요하다. 실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옥상의 휴게시설, 채소밭, 꽃정원의 황금비율인 3&3룰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바람직한 주말농장의 개념에서 본다 해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3룰이 적용되도록 법제정비도 가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말농장의 개념에서 3&3룰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와 함께 등록 허가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오히려 도시근교농촌의 황폐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 물론 베란다 상자정원에도 3은 휴식의 상자 그리고 3은 땀의 상자, 그리고 다른 3은 즐거움의 상자가 되고 만약 1이 남는다면 우리의 사랑스런 아들딸의 꿈의 상자로 남기면 어떨까?

3&3룰의 가장 큰 효과는 생산이란 개념이 사라질 것이고 농업이란 한계적 개념이 사라질 것이고 그 만큼의 결과적인 휴식과 즐김의 문화가 자라날 것이라 기대한다.

다양한 숙근초들이 혼합식재 되어 있다.

우리꽃만의 독창적인 암석가든인 ARI가든

이른 봄 화단 사이사이에 풀림이 피어있는 모습

미니골프장에서 퍼팅을 하며 즐기는 모습

그라스원의 파란깃의털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자연미를 한껏 살려 미니골프장내에 조성한 계류

적게는 20여 종에서 많게는 50~60여 종까지 혼합하여 다양한 식물을 생리적, 생태적으로 조합하여 시기별, 품목별 특성과 화색을 고려한 식재 방법으로 식물 상호관계를 중시한 식재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꽃만의 독창적인 암석가든인 ARI가든을 적용하였는데 이미 공법이 특허까지 등록이 된 우리꽃의 주요 공법중 하나이다. 기본 개념은 우리자연의 선과 맷을 정원에 적용하여 연중 새롭고 아름다운 조경을 만드는 것으로 식물을 선별하여 맞춤식 식재를 하고 부직포를 깔아 잡초나 관수등의 관리를 최소화한 공법이다. 둥근모양의 바위와 그에 어울리는 식물들 특히 포인트로 식재 되는 그라스계통의 식물들로 고급적인 느낌을 살려 준다. E&P(생태연못)공법은 생명이 살아 있는 자연의 제곡을 표현한 것으로 수생, 수변식물의 정화작용과 물벌레 들의 번식, 먹이 사슬 등이 살아 있는 연못을 만드는 것이다. 주로 ARI가든과 연계를 하여 조성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그라스를 주요 품목으로 하여 개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생김새를 살려 주고 이국적인 느낌의 그라스원 이라던가 철쭉이나 회양목등의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품목을 삼색,흰꽃, 분홍 등의 조합으로 대체를 하여 시공함으로써 봄부터 가을까지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적이다.

미니 골프장의 기본적인 조성은 위의 공법을 활용한 것이지만 꼭 이것들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때 그때에 따라 변화를 주고 현장에 맞춤식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교목과 관목을 활용하고 적은 품목으로 단일 식재도 좋고, 우리꽃이 개발한 공법도 좋다.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같이 공존할수 있게 하여 어떤 구성 요소를 넣더라도 통일성을 갖게 하는 것이 미니골프장의 최고의 활용이라 하겠다.

우리꽃의 미니 골프장은 퍼팅이라는 행위 한가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꽃이 있는 정관과 놀이 문화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공간으로써 통일시켜 주는 정원이라 하겠다.

품종 갤러리

양지 반음지 음지 수변 건조지 식록 반장록

애기노랑금계국

Coreopsis 'Creme brulee'
국화과.

6-10월까지 장기개화. 화색은 노랑색이고 키는 30-40cm정도 자란다. 꽃은 직경이 약 3cm정도로 기존 금계국보다 작으나 화수가 많은 다화성의 식물. 1차 꽃이 만개 후 지고나면 위로부터 3-4마디 아래를 커팅해주어야 2차 개화를 빨리 유도할 수 있다.도로변, 골프장, 식물원 등에 대면적에 군식하거나 혼합식재시 이용하면 좋다.
번식은 봄, 가을 포기나누기를 하거나 삽목하여 증식한다.

붓들레야

Buddleja davidii
마전과.

꼬리처럼 길게 피는 꽃은 이색적이며 요즘의 건축정원 형태에 매우 좋은 관목이다. 화색이 다양하고 대형의 포기는 포인트를 제공한다.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에서 꽃이 많고 색이 좋아진다.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내한성이 약한 품종도 있으니 주의한다. 이른 봄 묵은 가지를 잘라 새로운 튼튼한 가지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다.

에키나 스노우

Echinacea purpurea 'White lustre'
국화과.

고급스런 하얀색의 꽃은 고급정원, 도로가, 골프장 등 어디에 적용해도 좋다. 생육이 강해 반음지에서 양지까지 잘 자란다. 꽃이 져도 아름다운 이삭을 가져 절화용으로도 좋다. 부식질이 풍부한 토양에서의 재배는 매우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꽃이 1차 시들기 시작하면 꽃을 제거하여 2차, 3차 개화를 유도하면 장기간 개화한다.

숙근해바라기

Helianthus helianthoides 'Golden Sun'
국화과.

키가 80~120cm정도로 자라는 다년생의 해바라기로 1회 식재로 매년 해바라기 축제를 즐길 수 있다. 토양은 별로 가리지 않으나 약간의 습기가 있는 곳을 좋아한다. 벌개미취와 같은 지하경이 있어 번식이 빠르다.

새 블루마운틴

Calamagrostis acutiflora 'Blue Mountain'
화본과.

키는 약 60-70cm정도 꼿꼿이 자라고 잎은 블루색을 띤다. 브론즈색의 꽃은 매우 아름답고 약간 축축한 숲을 좋아한다. 너무 건조하면 생육이 불량해질 수가 있다. 아파트 등의 약간 습하고 반그늘진 곳에 심으면 좋고 활엽수 가장자리 등의 반음지에도 좋다. 정원의 혼합식재 혹은 기타 식물의 스크린식물로 활용해도 안성맞춤이다.

숙근달맞이 황금

Oenothera fruticosa 'Sonnenwende'
바늘꽃과.

초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꽃을 피우는 특징이 있다. 키는 50~60cm정도 자라며 꽃은 6-7월에 핀다. 생육이 왕성하여 재배하기 용이하며 꽃이 일반 달맞이 꽃에 비해 매우 크고 화색 또한 화려하다.

무늬갈풀 페세이

Phalaris arundinacea 'Fessey'
화본과.

대형의 군락식재에 유리하며 대체로 습기를 좋아한다. 6월 이른 시기 꽃으로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대부분 수변식물로 총고 무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므로 라인식재 후 커팅관리해도 좋다. 내한성이 매우 강해 강원도에도 재배 가능하다.

무늬둥굴레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Variegatum'
백합과.

무늬가 들어간 음지식물로 좋은 질감을 연출한다. 지하경으로 번식하는데 비옥하고 촉촉한 토양에서 매우 빠른 지피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나무 등의 침엽수림하에서라도 약간의 햇빛과 습도만 유지되면 생육이 양호하다. 숲 가장자리에 길게 군식하면 좋은 질감의 연출이 가능하다.

무늬어성초

Houttuynia cordata 'Chameleon'
삼백초과.

무늬가 좋아 반음지 및 건물 음지에도 효과적이다. 지하경이 발달해 조밀하고 빠른 지피효과를 볼 수 있다. 무늬가 좋아 꽃이 없어도 고급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다. 식물체에 상처가 나면 물고기 비린내가 나므로 주의한다.

구름국화 봄비

Erigeron 'Pink jewel'
국화과.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나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란다. 키가 작은 봄꽃으로 이른 봄 다양한 혼합색의 정원을 연출한다. 화색과 화형이 우리의 정서에 알맞은 아생화이다. 내한성은 높으나 토양의 물빠짐이 없는 곳에서는 겨울 고사율이 높다.

톱풀 파스텔

Achillea millefolium 'Colorado mix'
국화과.

키가 60-70cm정도 자라며 화색은 혼합이다. 잎은 거취가 심한 톱니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꽃은 6월부터 개화하여 10월까지지 꽃을 볼 수 있는데 1차 개화후 커팅해주어야 빠르게 다시 꽃을 볼 수 있다. 대단위 군식을 하거나 혼합식재시 적용하면 좋다.

비단세덤

Lampranthus spectabilis
석류풀과.

꽃이 봄부터 가을까지 피는 장기개화형으로 대형의 꽃매트를 형성한다. 다육성 식물로 극건조에 매우 강하다. 임식가든이나 ARI가든의 필수 품목이다. 배수가 잘되는 양지에 적합하다. 여름 장마철에 배수가 잘 되지 않을 때 세균성 병해의 피해가 자주 일어나므로 통풍이 좋은 곳에 재배한다.

부처꽃 탑

Lythrum salicaria 'Top'
부처꽃과.

일반 부처꽃 보다 1.5~2배 정도 더 큰 꽃대를 가지고 있다. 꽃은 7월부터 9월까지 핀다. 특히 습기를 좋아하고 양지를 좋아한다. 생육이 강건해 특별한 요건을 가리지는 않는 식물이다. 혼합식재의 경우 꽃이 지면 꽃대를 잘라 줌자의 퍼짐을 막고 새로운 꽃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 주로 삽목으로 번식한다.

아스타 발라드

Aster novi-belgii 'Marie Ballard'
국화과.

키가 크게 자라는 아스타 고성종으로 80cm정도 자란다. 다화성의 꽃은 보라색으로 피며 10-11월경 꽃을 피운다. 가을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피식물로 생육이 빠르고 상대적으로 키가 크게 자라기 때문에 혼합식재시 뒤쪽에 심는 것이 유리하다. 햇빛이 잘드는 곳이라면 어디든 생육이 좋다. 봄에 삽목, 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롭게 선보이는 도입품종 또는 자체 개발한 신품종을 소개함으로 현장에서 조경용 소재로 숙근지피식물을 선택하는데 있어 한 발 앞서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분홍색 도라지

도라지 로세아

▶ 키가 작고 줄기가 굵어 쓰러짐이 적습니다.

도라지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이다. 일단은 꽃 이전에 식용으로 우리의 식단에서 흔히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라지는 우리나라 각처의 산과 들에 흔히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 혹은 양지의 부엽질이 많은 곳에서 자란다. 키는 70~90㎝이고 꽃은 보라색 또는 흰색으로 피는데, 5갈래로 갈라지며 위를 향해 핀다. 뿌리는 굵고 줄기는 곧게 서며 줄기를 자르면 흰 유액이 나온다. 도라지는 꽃이 아름답고 관상가치가 있어 조경용소재로도 활용되는데 직접 묘종을 길러 현장에 식재하기도 하지만 대면적에는 종자를 파종하여 조성하기도 하는데 이른 봄 파종하면 당년에 개화가 가능하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도라지 품종중에는 분화용으로 키가 작은 품종이 화훼시장에서 화분에 담겨져 판매되기도 하는데 이번에 소개하는 로세아 품종은 꽃이 분홍색을 띄는 조경용품종으로 큰 장점은 쓰러짐이 적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라지가 키가 커서 쉽게 쓰러져 지저분해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도라지 로세아는 키가 약 50~60㎝정도로 키가 작고 줄기가 굵어 쓰러짐이 적은 품종이다. 화색 또한 엷은 핑크색으로 은은한 멋이 오히려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다 준다. 여름에 꽃을 피우고 군식보다는 혼합식재시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고 반음지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도라지의 특성처럼 배수불량 토양에서는 뿌리썩음병이 심하므로 물빠짐이 좋은 건조한 토양에 심는 것이 정원용으로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아름다운 향기식물

모나다

▶ 혼합식재용으로 좋습니다.

모나다는 꽃이 아름답고 동시에 잎의 향기가 좋은 식물이다. 꽃이 다화성이고 품종이 다양하여 품종에 따라 화색과 초장이 각기 다르다. 화색은 빨강색, 자주색, 혼합색이 있고 키가 큰 품종은 80~90㎝정도 자라고 키가 작은 왜성종은 30~50㎝정도 자란다. 왜성모나다 핑크는 꽃이 매우 강렬하고 화려하며 왜성모나다 우리는 우리꽃이 개발한 품종으로 꽃은 자주색이고 다화성이며 키가 매우 작아 앞라인에 식재해도 좋다.

화단조성시 군식용보다는 혼합식재용으로 매우 좋은데 고성종은 뒤쪽식물로 왜성종은 중간과 앞라인으로 식재해주면 여름에 좋은 꽃을 감상할수 있다. 생육이 강건하고 6월에서 9월에 꽃을 피우는데 꽃이 지고 난후 커팅하여 새로운 꽃을 유도해주는 것이 좋다. 꽃이 만개하였을 때 벌이 많이 모이고 잎의 향기가 좋아 특히 테마정원의 향기식물원을 조성할 때 필수적인 소재이다. 내한성이 뛰어나고 꽃이 아름다워 배초향 자향, 숙근사루비아, 황금배초향, 차이브 등 잎과 꽃이 좋은 향기식물과 잘 어울리게 심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모나다는 다른 이름으로 허브식물 벨가못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다.

토양은 양분이 많은 사질양토를 좋아하고 생육기에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겨울철에는 건조한 것이 좋다. 그리고 꽃이 지고 난후 가을에 잎과 줄기가 저저분해질 수 있는데 이때는 줄기 전체적으로 커팅해 주는것이 주변의 다른 가을꽃이 필 때 경관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른 봄에 삽목을 하여 증식하는 것이 좋다.

우리꽃은 창사이래 조경용 묘종 및 종자 시장에 많은 신제품을 선보여왔다. 가우라, 숙근코스모스, 잔디패랭이, 우리법면혼합종, 눈볼은꿜레 등등... 그리고 많은 제품들이 폭발적인 인기속에 현장에 적용되어졌고 지금도 꾸준히 이용되어지고 있다. 이번 코너에서는 큰 인기를 모으며 지금까지도 조경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우리꽃 명품'들을 다시 재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초창기부터 후룩스는 조경용소재로 많이 활용되어 왔으며 특히 도로변 화단에 주로 식재되어져왔다. 꽃이 화려하기 때문에 어떤 소재보다도 사람들의 눈을 끌어당기는 소재로 각광을 받아왔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빨강색, 하얀색 정도의 후룩스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색상, 형태 등이 서로 다른 다양한 품종이 존재하고 있었다.

2002년부터 우리꽃은 이러한 다양한 신품종 개량후룩스를 시장에 선보이게 되었고 조경현장에 식재후 꽃이 피고 효과를 보고 난뒤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할 정도로 이제는 조경현장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그렇다면 개량후룩스가 이렇게 뛰어난 판매량을 보이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빨강, 분홍, 주황, 보라 등 색상이 다양하고 꽃송이가 포도송이처럼 크고 탐스러운 형태를 띤다

둘째, 기존 후룩스가 여름에 일시적으로 개화하는 반면 개량후룩스는 6월말부터 가을까지 연속해서 장기개화한다.

셋째, 개화시기에 흰가루병에 걸리게 되어 보기 싫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량종은 흰가루병에 내병성이 있어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넷째, 생육이 강건하며 꽃이 매우 아름답고 화려하여 어떤 숙근초보다 뛰어난 효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개량후룩스는 출시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품종군이다. 도로변에 군식해도 좋고 대면적의 후룩스원이나 혼합식재 등에 이용하면 항상 꽃이 있는 정원을 연출할 수 있다. 특히 4월말에 개화하는 후룩스 봄바람과 5월중순에 개화하는 후룩스 봄맞이가 2008년에 새롭게 선보이면서 더욱더 종류가 다양해졌고 품종선택에 신중을 기하면 후룩스 품종만으로도 차별화된 연출이 가능하다. 토양은 꽃이 오래가는 품종이므로 비옥한 곳을 선호하고 배수가 좋지 않으면 여름 장마기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물빠짐이 좋아야 한다.

우리꽃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품종은 약 20여종이고 지금은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시험재배 중이다. 새롭게 개발되는 품종은 화색, 화형 등이 더욱더 업그레이된 특성을 가지며 앞으로 품종등록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이게 될 것이다.

기존 각종 코너에서 주제에 맞게 다양한 식물과 현장들이 소개되어져 왔다. 이번 테마시리즈에서는 이들을 총망라하여 식물별, 현장별로 주제 즉 테마를 정하여 다양한 사진을 곁들여 독자들에게 연재로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물과 잘 어울리는 식물

수변, 수중식물을 중심으로...

이제는 조경공간을 조성하면서 친수공간은 빠질수 없는 필수요소로 자리잡았다. 시민들을 위한 공원, 아파트 단지, 식물원 등 어디를 보아도 조경공간에는 크고 작은 소연못이나 계류, 벽천 등은 반드시 설계되어져 시공되고 있다. 그만큼 조경에서 물은 시각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 주변을 잘 꾸밀 수 있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 시설물, 돌, 식물 등등.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식물이다. 일반적으로 연못, 계류주변에는 수변, 수중식물 이라고 일컫는 식물위주로 적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단조로워 질 수가 있다. 물론 계류나 소연못주변에 물이 많이 형성된다면 이러한 환경에 생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식물을 적용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물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식물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잎이 좋은 식물, 꽃이 아름다운 식물, 물에 잘 적응하는 식물 등등. 그렇기에 이번 호에서는 수변, 수중식물을 비롯한 물과 잘 어울리는 식물을 크게 특성 및 형태적인 것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현장에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꽃이 아름다운 식물

알케밀라

° 연두색의 맑은 꽃이 물과 잘 어울려 고급이미지를 더해 준다.

벌개미취

° 한국 특산식물로 은은한 보라색 꽃이 우리정서에 알맞고 계류주변의 양지 혹은 반음지에 적용하면 좋다.

아스틸베

° 노루오줌이라고고 불리는 식물로 품종이 다양한 만큼 화색 또한 다양하다. 음지쪽에 적용하면 유리하고 수변을 화려하게 수놓을 수 있는 소재

거북머리

° 개화기간이 길고 꽃이 특이한 모양으로 인기가 높다. 매우 강건하고 쓰러지지 않는 튼튼한 줄기를 가지고 있다. 계류주변에 군식해주면 좋다.

가우라

° 장기개화형 식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수종으로 수변에 장기개화형의 식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가우라는 수변의 장기개화형 식물로 군식하거나 혼식해주면 좋다.

원추리류

° 대부분 원추리류는 일반지에서도 잘 자라지만 수변식물로도 매우 적합한 소재이다. 품종이 다양하며 스텔라원추리의 경우 화기도 길어 좋은 수변경관을 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부처꽃탑

° 우리꽃이 개발한 신품종으로 꽃대가 크고 화색이 진하여 수변의 화려함을 강조할 수 있는 품목

아이리스류

꽃창포

° 수변의 대표적인 식물로 꽃이 무리지어 만개하면 시원함을 선사해준다. 간혹 꽃창포를 물속에 심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수변에만 생육이 가능하다.

무늬꽃창포

° 일반 꽃창포와 마찬가지로 꽃이 좋을 뿐만아니라 잎의 무늬가 매우 아름다워 수변의 포인트식물로 제격이다.

제비붓꽃

° 꽃이 붓꽃에 비해 크고 화색이 진하며 꽃잎속의 무늬 또한 하얀색으로 깔끔하다. 초형이 크기 때문에 잎 자체만으로도 강건하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 수심 10cm까지 생육이 가능하며 수변에서도 잘 자란다.

노랑꽃창포

° 대표적인 수변, 수중식물로 꽃창포와 달리 수심 30cm까지 생장이 가능한 식물로 노랑색 큰꽃과 칼같이 곧은 잎이 시원한 느낌을 준다.

부채붓꽃

° 잎이 부채살 모양으로 잎 자체만으로도 관상가치가 있는 붓꽃, 5cm미만의 얕은 물속에서도 생장이 가능하다.

흰붓꽃

° 순백의 하얀색 꽃무리는 다른 보라색 계통의 아이리스류와 잘 어울리며 수변공간을 밝게 해준다.

일본꽃창포

° 이 계통의 꽃창포는 꽃이 크고 아름다워 앞으로 기대가 되는 아이리스 품종군이다.

키가 작고 지피력이 좋은 식물

왕아주가

° 광택이 좋은 적갈색의 잎은 크고 지피력이 좋아 수변의 음지쪽에 색감을 연출할 때 좋다.

무늬피막이

° 포복성으로 자라는 식물로 지피력이 뛰어나고 그늘지 수변의 돌주변에 식재하면 좋다.

황금리시마키아

° 수변의 습기가 많은 곳에 적용하면 좋고 황금색 잎이 주변을 매우 밝게 해준다.

카펫주름잎

° 포복성으로 수변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고 답압에도 강하여 사람의 발길이 쉽게 접하는 곳에 식재해도 무관하다. 무늬피막이, 황금리시마키아 등과 잘 어울려 심으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바위취

° 잎 자체적으로 관상가치가 뛰어나고 작고 은은한 하얀색 꽃무리는 이슬같은 이미지를 가져다 준다.

그라스류

아이스댄스

° 잎의 무늬와 광택이 아름다울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초형이 난처럼 기품이 있어 수변의 돌틈이나 포인트로 적용하면 효과적이다.

해변무늬실사초

° 연못주변에 군식하거나 계곡의 돌틈사이에 식재하면 가느다란 잎이 늘어지며 물에 흐르는 경관이 매우 일품이다.

에버골드

° 중앙부의 상록성의 크림색 무늬가 좋고 수변의 돌틈이나 포인트로 적용하면 좋다.

무늬글리세리아

° 땅속 지하경으로 번식하며 잎이 두껍고 아름다운 무늬가 노랗게 들어있어 포인트식물로 적용하면 좋고 수심 20cm까지 생육이 가능하고 수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억새 모닝라이트

° 전체적인 초형이 좋아 연못 주변에 포인트로 반복 식재해주면 좋다.

억새 파랑새

° 키가 작은 억새로 잎의 질감이 뛰어나고 계류 돌주변으로 식재하면 잘 어울린다.

무늬 갈풀 페세이

° 수변식물로 좋고 무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므로 라인식재 후 커팅관리해도 좋다. 얕은 물속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무늬큰고랭이

° 잎 줄기에 세로의 하얀 무늬가 형성되어 있고 대형의 수중식물로 선이 아름답다. 수심 30~50cm까지 생육이 가능하다.

코드그라스

° 일반적으로 습기가 많은 지역을 선호하고 아치형을 이루는 긴잎의 아름다운 선이 핵심이다.

부들류

° 대표적 수중식물로 최근엔 그 침입성이 강해 용기식재하는 경우가 많다. 무늬종은 고급의 작은 연못에 항아리에 심어 포인트식물로 연출한다.

화룡물사초

° 블루색의 시원한 고급 수중식물로 수심 20cm까지 생육이 가능하며 잎의 질감이 뛰어나고 생육이 강하여 군식하면 좋은 경관연출이 가능하다.

관목류

산수국

° 블루톤의 고급스러운 회색을 가지고 있으며 반음지의 계류주변에 적용가능하다.

물싸리

° 노랑은 물론 하얀색과 분홍색 등 화색이 다양하고 자람이 빨라 계류주변의 돌틈사이에 식재하면 돌과 잘 조화를 이루며 자란다. 물이 많은 토양 혹은 배수 불량지는 피한다.

무늬키버들

° 이른 봄 아름다운 무늬는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우며 키는 2~3m이상 자란다.

삼색조팝

° 잎의 색상과 꽃이 아름다운 조팝으로 가을에는 적색의 단풍이 일품이다.

황금조팝

° 봄부터 가을까지 황금색 잎은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잎의 질감과 무늬가 아름다운 식물

무늬엔젤리카

° 하얀꽃과 무늬가 좋아 수변에 라인식재 또는 포인트식재로 좋다.

호스타류

° 옥잠이라고 불리는 호스타류는 음지에 적용하는 소재로 흔히 알고 있지만 수변식물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소재이다. 잎의 무늬와 질감이 다양하여 다른 식물과 잘 어울리며 수변을 빛내주는 소재이다.

적엽휴케라

° 적색의 강렬한 잎은 화려하고 고급스런 경관연출을 가능하게 해준다.

무늬어성초

° 잎의 색감이 좋아 단일군락으로도 좋고 다른 식물과도 잘 조화를 이루어 특별한 수변경관을 연출한다. 수변 또는 5cm이하의 수중에서 생육이 가능하다.

적엽좁쌀풀

° 어린 새싹부터 다 자랄때까지 잎에서부터 줄기까지 붉은색을 띄고 수변에 적용가능한 식물로 수변의 포인트식물로 적용이 가능하다.

황금좁쌀풀

° 전체적으로 잎의 무늬가 아름답고 6~7월에 노랑색꽃이 식물전체를 뒤덮는다. 수변의 포인트 식물로 적용하면 좋다.

무늬꽃범의꼬리

° 일반 꽃범의꼬리와 같은 형태를 띄지만 잎가장자리에 하얀색 무늬가 좋아 잎 자체로도 관상가치가 뛰어나다.

기타

돌단풍

° 건습지, 음양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며 수변의 돌틈에 적용하면 좋다.

칸나 파초

° 대형의 수변식물로 이용을 권장한다. 수변에 열식하거나 포인트 식물로 제격이다.

속새

° 겨울 청색의 상록성으로 습지용으로 매우 좋다. 가정의 소연못용으로 키가 작은 애기속새가 매우 좋다.

청나래고사리

° 자연형 연못이나 계류의 돌틈사이에 군식하면 좋고 어느정도 차광되는 음지에 식재하는 것이 생육에 좋다.

왕머위

° 잎이 큰 식물로 큰 연못의 가장자리에 숲쪽에 붙여 군식하면 좋고 매우 이색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이번 코너에서는 잘 조성되고 관리된 정원을 대상으로 정원의 주테마를 해석하고 사용된 소재(식물 또는 자재)배치나 특징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실제로 조경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편집자주–

식물상호간의 절묘한 조화 혼성식재

사진은 독일의 한 박람회 현장이다. 우리꽃에서 혼성식재라 부르는 식재 패턴이다. 시기는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극심한 더위가 덜한 곳이다.

사진에서 보이는 품종들을 우선 살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배초향 '자향'이다. 일반적으로 보라색은 멀리서 볼 때 잘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처럼 다른 품종 특히 흰색 계통의 꽃과 혼성식재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시선을 사로잡는 색이다. 그다음은 분홍색과 흰색의 에키나가 보인다. 에키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품종이기도 하다. 분홍색 계열의 에키나는 대체로 배초향 '자향'과 붙여서 식재하였다. 만일 따로따로 떨어뜨려 식재가 되어 있으면 보라색, 흰색, 분홍색 순으로 색이 섞여 어지럽고 혼잡스러워 보일 것이다. 이것은 혼합식재나 두세 품종만으로 단순식재 할 때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중간중간 밝은 분홍색이 보이는데 이는 우리 현장에서도 많이 쓰는 꽃범의꼬리이다. 역시 보면 배초향'자향'과 에키나 주위로 심겨져 있는데 어두운 톤(보라색)에서 밝은색(흰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기 위한 배치이다. 나머지는 흰색의 에키나와 가우라가 보인다. 에키나는 흰색도 여러 품종이 있는데 그중 알래스카로 보이며 이 품종은 한창일 때는 흰색으로 보이다가 꽃이 져가는 때에는 꽃잎이 옅은 녹색으로 변하는 품종으로 단일 식재로도 좋은 품종이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배경색이 되는 가우라는 흰색만 사용하였다. 필자가 봤을 때 가우라의 선택은 탁월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같은 하양의 꽃이라도 에키나, 후룩스처럼 꽃송이가 큰 꽃이 전체를 뒤덮고 있으면 배초향이나 분홍의 에키나가 돋보이지 않을 것이다. 꽃이 작고 키가 다른 품종에 비해 조금 작음으로써 타 품종을 돋보이게 해주는 좋은 재료가 된다. 또한 6월에서 10월 까지 꽃이 개화됨으로써 앞으로 개화될 아스타와도 좋은 조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배초향이나 에키나의 경우 9월로 넘어갈 경우 꽃이 지지만 가우라는 여전히 꽃을 피워 준다. 또 가우라는 만개후 잎과 꽃이 올라오는 사이를 잘라 전정해주면 약 보름후에는 다시 만개한 꽃을 볼 수 있으므로 꽃을 아까워 하지 말고 커팅해 주는 것이 좋다. 이미 위에서 말했지만 아직 꽃은 피지 않아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스타가 있다. 아마 분홍색계열의 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가을에 좋은 버베나 같은 꽃을 섞어주면 더 좋은 볼거리가 될 것이다.

다른 박람회 등을 보아도 혼성식재가 요즘 유행이 아닌가 한다. 일년생의 초화부터 이런 식의 패턴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또 혼성식재는 얼핏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식물의 특성이나 색의 조합, 배치가 정확히 계산되지 않으면 혼란스럽고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마는 식재 방법이라 전문가의 꼼꼼한 지도가 있어야 성공 할 수 있는 까다로운 식재패턴이다.

버베나

백일홍, 코스모스 등 일년생으로 조성된 혼성식재

우리꽃과 사람들을 각계의 관련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조경, 원예, 생태등에 관련된 주제로 자유로운 기고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이다.
–편집자주–

민족의 유산 토종종자 -1

(사) 한국토종연구회 고문/토종 씨드림
대표_안 완 식

▲덩굴강낭콩

토종이란? 최근에 들어와서 "토종"이라는 단어를 듣는 회수가 갑자기 많이 늘었다. 계속되는 장기불황 속에서도 토종음식전문점의 인기는 떨어지질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토종음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건강을 고려한 안전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토종음식이 오염되지 않은 웰빙 음식으로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급속한 경제 발전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환경 파괴와 믿겨지지 않는 오염된 곡물을 비롯하여 GMO농산물이나 오염된 식품의 무분별한 수입과 서양화된 음식문화로 비만이 급격하게 늘게 되었고 고지혈, 고혈당 등 혈관계 질환이나, 당뇨와 각종 암 등 성인병 발생 연령의 조기화 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되고 있다. 너무 잘 먹기 때문에 생기는 소위 말하는 부자병인 것이다. 급기야 균형 잡힌 저칼로리 식물성 식품의 섭취에 의한 건강 찾기로 한국전통식문화의 재발견과 함께 토종이 세계 제일의 웰빙 음식으로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토종을 심어 가꾸어 먹음으로서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고 싶어 하는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70세 이후의 노인층은 6·25한국동란을 몸으로 겪은 세대이어서 어려웠던 당시의 배고팠던 때에 먹었던 토종에 대한 향수 심과 맛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서 토종을 찾기도 한다.

"토종은 한반도의 자연생태계에서 대대로 살아 왔거나 농업생태계에서 농민에 의하여 대대로 사양 또는 재배되고 선발되어 내려와 한국의 기후풍토에 잘 적응된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이다." 한국토종연구회의 토종에 대한 정의이다. 즉 토종은 한반도에 오래전부터 있었거나, 오랜 기간 한반도의 환경에 적응된 생명체인 것이다. 토종인 한국사람의 IQ가 도시국가인 홍콩을 제외하면 세계 제일이고 미국의 많은 일류대학에서도 1등의 자리는 한국학생들의 차지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예술 면에서도 음악계나 미술계에 세계의 거장들이 있고, 인구 50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에서 세계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유엔 총장도 나왔으며, 금메달리스트는 또 얼마나 많은가. 60여 년 전 6.25 한국동란 이후 수혜국에서 베푸는 나라로 급속 발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바로 4천년을 토종을 먹고 살아온 토종인 한국사람 이기 때문이 아닐까한다.

다음호에 계속

▲청산도에서 토종종자 수집

▲배곡히 정리되어 있는 토종 종자들

우리꽃에서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화훼시장의 확대를 위해 아이디어 창출과 다양한 품종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코너에서는 해외의 유명 박람회, 가든센터, 식물원 등을 방문, 소개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변화와 트렌드, 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2011 코블렌츠 정원박람회
(Bundesgartenschau 2011)

도이체스 에크

선제후 궁전

엘렌브라이트슈타인 요새 지역으로 가는 곤돌라

60년의 전통을 지닌 코블렌츠 정원 박람회는 라인강과 모젤강이 합류하는 포도주 교역 중심지 코블렌츠의 대표적인 연례행사이다. 4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코블렌츠 도시의 도이체스 에크, 선제후 궁전, 엘렌 브라이트슈타인 요새 세 곳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1951년부터 매 홀수 해에 열리며 전통 있는 가든 쇼로 인정받고 있으며, 올 해는 4월부터 반년간 코블렌츠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 185일간의 박람회 기간 동안 약 200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대표적인 꽃 축제다. 올 해 가든 쇼에는 1997년부터 도입된 전자계수기로 방문기록을 잰 이래, 최초로 300만 명이 방문했다. 200만 명이 평균 방문기록이었던 이전과는 달리, 올 해는 8월 초에 이미 방문객 수가 200만에 달했으며, 9월 21일 오전에는 300만 번째 방문객을 맞이하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300만 번 째 방문의 주인공은 여행 쿠폰, 기념품 등의 선물과 함께 영예로운 기록에 이름이 올랐다.

코블렌츠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세 지역을 소개하자면, '선제후 궁전'은 라인강 옆 녹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인기 레스토랑과 맛있는 와인을 맛볼 수 있는 와인 산지도 가까이에 있다. 라인강의 전망을 살려 새롭게 디자인한 중심지역으로 수천송이의 꽃들로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라인강과 모젤강의 합류점인 '도이체스 에크'는 '독일의 모퉁이'를 의미하며 황제 빌헬름 1세의 기념상이 있는 광장에서 꽃으로 장식된 정원을 만나 볼 수 있다. 루드비히 박물관과 장크트카스토어교회와 함께 편안한 휴식을 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공간을 만들어낸다.

10세기에 만들어진 견고한 '엘렌브라이트슈타인 요새'는 가장 큰 중심지역으로 현재 일부가 유스호스텔로 이용되고 있으며 길이가 무려 850M 곤돌라로 라인강을 건너 '도이체스 에크'에서 이동할 수 있다.

"KOBLENZ CHANGES"라는 슬로건으로 디자이너들은 세 곳의 다른 전시 지역의 디자인을 중심지와 주변부를 차별화하면서도 하나로 통합하였다. 전시지역 마을의 독특한 위치와 역사를 콘셉트에 반영하였다. 물, 유럽, 라인 로맨티시즘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주요 요소로 구체화시켰다. 총 부지 면적, 31만 5,000㎢에 10만개가 넘는 구근이 심어지며 그 중 봄과 여름의 꽃이 1만㎡, 관목류가 7,000㎡, 화목류가 2,600㎡, 장미가 4,000㎡나 된다.

자연, 문화, 건축 3가지 테마로 한 플로리스트를 위한 실내 프로그램을 비롯해 음악을 중심으로 한 3,000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정원과 자연'을 테마로 한 세미나도 개최된다. 매일 전시회, 음악공연과 같이 남녀노소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으며, 마지막 날인 10월 16일 저녁에는 다음 정원 박람회 개최지인 함부르크에 바통을 넘기는 'BYE BYE BUGA' 행사가 진행되었다. 다음 IGS(INTERNATIONAL GARTEN SHOW, 국제 정원 박람회)는 2013년에 열린다.

빠른 효과, 편리한 시공

우리 식생매트

우리식생매트는 시공 후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완성형의 화단을 위한 최고의 제품군입니다. 편리한 시공, 완성형의 빠른 효과외에도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패턴의 제품군이 있습니다.

봄꽃용 혼합형 식생매트

봄 일찍 화단에 팬지대용으로 튤립, 꽃잔디, 고급일년생 초화류를 혼식해서 새로운 개념의 파스텔톤의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합니다.

고급품종군 식생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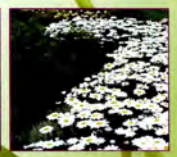
꽃이 화려하거나 장기개화되는 고급품종군은 도로변, 행사장 등에 군식, 혼합식재용으로 빠른 효과를 원할 때 좋습니다.

그라스류 식생매트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그라스류 식생매트를 다양하게 선보입니다.

야생화 식생매트

벌개미취, 붓꽃, 수크령, 꽃범의꼬리, 샤스타데이지 등 빠른 피복과 꽃이 좋은 다양한 야생화 식생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닮은 사람들 우리꽃 녹화수(주) 구입문의 : 031)712-7001,7119

이번 코너에서는 다양한 조경 식물의 생리 생태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조경 식물을 조경 식재지에 알맞게 적용하는 법과 우리꽃의 품종을 포함한 12개 조경 식물군의 다양한 식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13 식물의 명명과 분류–②

이명 (synonym)

모든 식물종은 각기 단 하나의 학명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분류학의 발달에 따라 잘못 분류되거나 명명된 식물의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흔하다. 학명을 식물명명 측면에서 본다면 이명은 그 형태나 적용으로 보아 부정확한 변칙적인 식물의 이름이다. 따라서 어떤 식물이 분류학적 판단에 따른 차이나 연구의 진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불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 중에서 오직 하나만이 유효한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학명이다.

식물의 이름은 특허와 같이 최초에 붙인 이름이 선취권을 가진다. 식물분류학, 특히 분자생물학의 발달로 식물분류나 명명(nomenclature)이란 완료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설령 예전에 맞는 이름이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증거에 근거한다면 제외되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 사용해온 이름은 이명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아 이름의 변경과 실제 이용에는 시간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명으로 처리되었다 해서 모두 당장 버려야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식물의 이력이 되어 후속 연구에 귀중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종, 잡종, 품종

야생에서 종들은 열매, 꽃, 잎, 서식지 등에서 다양성을 갖추며 자생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유지시키는 변화는 진화적 단계에서 생길 수 있고, 식물학자들은 그러한 다른 점들을 인식하고, 종의 하부단위로 적용한다.(아종, 변종, 품종) 아종은 형태상, 유전학상 구분되는 "미니종"이다. 가끔씩 지리학적인 분포에 의해 구분되기도 한다. 변종은 야생에서 생긴 것이며 본래종과 확실하게 다른 점을 찾기 힘들다. 품종은 색상의 변화 또는 유사한 작은 다른 점들이 있다. 잡종의 결과물이 번식력이 좋으면 몇 세대가 생산될 수도 있다. 비록 대부분이 재배상의 결과물이지만 야생에서도 이종 잡종이 생길 수 있다. 가까운 속들은 또한 재배상으로 교배될 수 있다.

*Cupressus*와 *Chamaecyparis*는 속간 교배되었다. 어떤 품종들은 무성생식으로 증식되기도 하고 다른 품종들은 종자로 생산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보통 한해살이지만 초본성 다년생일 수 도 있다. 만약 돌연변이가 무성생식으로 번식된다면 그것은 품종명을 달고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돌연변이는 안정적이지 않으며 어떤 것들은 자주 부모의 특징으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재배품종 (cultivar)

재배품종이란 'cultivated variety'의 번역어이다. 이는 재배식물명명의 한 분류단위로 형태적, 생리적, 세포학적, 화학적 또는 다른 인자로 분명히 구별할 수 있으며 자연적 혹은 연구를 통하거나 교배시켜 인위적으로 육성한 식물로 번식의 수단을 통하여 동일형질의 식물을 계속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식물을 의미한다. 재배품종을 야생식물과 동일한 규칙에 따르며 이에 부가하여 재배품종의 명명은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ICNCP: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에 따른다. 재배품종의 표기는 이탤릭체 대신 인쇄체를 사용하며 첫자는 항상 대문자로 시작한다. 특히 재배품종명은 ICNCP에 따라 1959년 1월부터 처음 유래된 나라의 언어를 로마자로 표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규칙 이전에 라틴어로 등록한 재배품종명은 이 규칙의 적용에 관계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재배품종명은 흔히 재배식물의 명명이 그리 쉽지 않은 이유 때문에 식물분류학자들의 관심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나 정확한 조경식물의 식별과 이용을 위해서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재배품종명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하며 맨 마지막의 것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기방법이다.

Groups, Grexes, and Series

교잡을 통해 특징이 비슷한 많은 품종들이 개발된다. 이들은 유사함을 나타내는 그룹으로 불리며 분류된다. 그룹내에서는 처음에는 이름을 붙인 품종들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또는 이후에 선택되어 그룹에 포함될 수도 있다. 난의 명명법에서 Grex는 그룹과 같이 쓰인다. 상업적으로 시리즈와 그룹은 상통하는 의미로 쓰인다. 시리즈는 자손의 높은 일관성을 가지는 교배라인에 기본한다. 시리즈는 가령 꽃색처럼 한 특징에 대해서만 다른 점을 나타내는 품종의 수를 포함한다. 어떤 시리즈는 일부 특징을 섞어서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특정은 같지만 색깔 다른 꽃들을 제공한다.

식물명명의 기본법칙

모든 식물의 이름은 전 세계의 식물학자들이 합의하여 만든 국제식물명명규약

(ICBN: 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에 따라야 한다. 최초로 종명을 발표할 때에 사용한 표본을 모식표본(TYPE SPECIMEN)이라 하고, 속명을 기초로 사용된 종을 기준표본(TYPE SPECIES)이라 하며, 식물의 명명은 다음 6가지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 식물의 학명은 동물의 학명과 관계가 없다.
- 분류군의 명명은 표본이 명명기본이 된다.
- 분류군의 학명은 선취권에 따른다.
- 각 분류군은 오직 하나의 이름만을 가진다.
- 학명은 라틴어화하여 표기한다.
- 규약은 일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소급하여 적용한다.

체세포돌연변이 sport

체세포돌연변이는 보통 국화류 등의 식물에서 꽃의 일부 색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출현하고 있다.